

7/23(토) 아가 5-8장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

아가서는 남녀의 친밀함을 다룬 책이기도 합니다.

교제, 결혼, 부부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 희미해진 시대에

아가서는 참 사랑, 성에 대한 하나님의 순리를 묵상하게 합니다.

세상은 사랑을 음미하며 <대화>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.

오직 쾌락과 절정에 이르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(겔16:23-29).

상대방의 마음, 감정, 가치에 관심이 없고 <책임> 또한 없습니다.

쾌락과 탐욕, 편리함을 숭배하며 <생명>들이 죽어갑니다(16:20).

아가서는 이 시대가 잃어버린 기다림, 애뜻함, 풍성한 친밀감,

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.

사랑은 존중과 존경으로 눈을 마주하는 대화입니다(1:15).

애정과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살어나게 합니다(2:2).

참 사랑은 <순간>이 아니라 <발전/깊어짐>의 서사가 있습니다(2:3-7).

설렘의 봄노래가 흐르고,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(2:10-13, 6:14),

손끝이 닿을 듯 말 듯 애타는 심정이 있습니다(2:14).

이 사랑이 더 큰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면서

둘은 존재의 원천인 <어머니 집>에서 함께, 새로이 태어납니다(3:4).

참 사랑에는 서로를 당당히 응시하는 몸의 대화가 있습니다(4:12-5:1, 6:2).

힐긋거림이 아닌, 사랑하는 이를 향한 건강한 시선입니다(4장, 7장).

아가서는 오늘날 노골적인 이미지들로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

풍요롭고 아름다운 성적 심상들을 그려냅니다.

참 사랑에도 갈등과 위기의 구간들이 있습니다(5장).

전 존재가 흔들리면서도 인내하고 조정해야 할 순간입니다.

아가서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가페로 승화되는 전환점을 보여줍니다.

애뜻하고 뜨거운 감정을 넘어 몸부림치며 지켜낸 사랑 속에서

두 사람은 더욱 끈끈하고 견고하게 결합됩니다(6:8-9, 8:6-8).

나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깨닫습니까?

- ❶ 교제, 결혼, 부부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깁니까?
- ❷ 순리 안에 예비 된 풍성한 관계, 친밀함과 기쁨을 믿음으로 인정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아가 5-8장